환송만찬사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에 성심으로 참여하시고 협력해주신 세계불교지도자와 이웃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의미와 성과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과거 뼈아픈 역사의 흔적이 분단의 현실로 여전히 남아 있는 땅,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세계의 평화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700년의 불교 역사와 전통으로 찬란한 인류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불교 지도자와 이웃 종교인들이 모여 '참나'를 찾기 위한 간화선 수행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불교지도자들께서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신 것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감동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남과 북, 북과 남의 반목, 갈등, 대립을 넘어 공존, 상생, 합심을 지향하는 <불교통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불교지도자들을 모신 자리에서 <불교통일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불교인 10억 명의 공동 발원이 되었으며, 이는 한편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불교계와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와 세계 불교지도자들, 그리고 이웃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인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매우 소중한 세계평화 기원문을 채택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원문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의 지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치열한 구도(求道)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저 뒤에서 더디 걷는다 하여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서 빨리 걷는다 하여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길 위에서 만나야 할 도반(道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어짐이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설렘만을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를 빛내주신 세계 불교지도자 여러분과 이웃 종교지도자 여러분께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대회 기간 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역과 번역을 담당해주신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시는 길,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없이 편안한 길이 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